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진 전문

세인 신경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응체계 본격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열고 후속조치 등 논의 협력회의 전담위원회 신설 구조개편 단행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하 협의회)는 23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후속조치,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 공공인상교수제 도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전담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지만, 안전 선정·심사 및 회의 진행 등에서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협의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다 강력한 결속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체 핵심사업으로 명기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특별위원회' 신설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총 결집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또한,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23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가가 참여한 TF 구성 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을 위해,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나이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서 시도의 공동 현안 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향후에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로 향후 선거일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도지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 최대' 군산국가산단, 친환경 첨단산업 거점으로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 추진

전북권 최대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단 사업지를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거점으로 이끌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신영대 국회의원,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혁신기관장 및 주요 입주기업체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해 성공적 인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사업'은 노후 산단을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청원, 반월·시화산단을 시작으로 군산을 포함해 현재 10개 산단이 지정·운영중이다.

그간 군산산단은 한국GM공장 폐쇄, 기반시설 노후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산업경쟁력 약화가 지속됐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산업환경 개선과 구조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군산산단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의 거점산단과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동시에 지정돼 정부의 적극



23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신영대 국회의원, 김용만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강임준 군산시장, 도내 혁신기관장 및 주요 입주기업체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 출범식'이 열렸다.

적인 재정작정정책 지원이 약속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혁신은 물론 내연기관 중심에서 탈피, 미래형 모빌리티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변혁의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군산스마트그린산단은 '전북의 신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비전으로, 오는 2028년까지 ▲디지털 혁신기반 조성, ▲인프라·에너지의 녹색전환, ▲청년 희망키움 공간으로 탈바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개년간 16개 사업, 1,476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올해는 스마트팩토리의 시설 확충,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등 총 4개 사업 130억원의 규모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산단공 전복도·군산시 등 관할 지자체 및 지역 혁신기관·대학교가 참여하는 전북군산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전담해 추진한다.

또한 사업단은 지자체, 지역혁신기

관 및 입주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구조 혁신 및 탄소중립 산단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 기회 및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군산국가산단이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전북도의 혁신 성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전북군산 스마트그린산단의 성공을 위해 전북도가 항상 응원하고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야호전환학교, 대안교육기관으로 '출발'

내달 개교, 전주형 전환교육 실시 학생 참여도 따라 정규 학력 인정

시, 내달 18일까지 17~19세 청소년 대상 첫번째 신입생 모집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전주시 야호전환학교가 학생들의 참여도에 따라 정규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출발하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전주시는 야호전환학교가 전라북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야호전환학교는 청소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전주형 전환교육을 한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거나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있는 학생들을 위탁받

아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과활동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지만, 학생의 학적관리는 원적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야호전환학교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뿐 아니라 공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을 희망하는 기존학교 일반학생들도 부담 없이 이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는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응시하기 위해 다니거나 새로운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잠시 정규교육을 중단하고 이곳을 다니다 원래 학교로 복귀하거나 검정고시에 별도로 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야호전환학교에 다닐 첫 번째 신입생 20명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는 17~19세 청소년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입학문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야호학교(063-281-6581, 6582, 65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